

중소·벤처기업 R&D에 모태펀드 투자한다...'최대 2 년간 30억원'

중기부,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R&D 사업 공고
24일부터 7월31일까지 모집

-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2:00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모태펀드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R&D 과제에 최대 2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을 받는 R&D사업에 대한 기업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800억원 규모의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23일 공고했다. 이번 하반기 R&D사업은 ▲기술혁신 ▲창업성장 ▲투자형 ▲예비가젤형 등 총 11개 사업에 164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서 1800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 규모		공고 시기
			과제 수	예산	
기술혁신	수출지향	최대 4년, 20억원	25개	50억원	6.24
	시장확대	최대 2년, 6억원	265개	398억원	
	시장대응	최대 2년, 5억원	270개	337억원	
상용화	네트워크형	최대 2년, 6억원	60개	90억원	9월중
창업성장	디딤돌	최대 1년, 1.5억원	356개	214억원	6.24
	전략형	최대 2년, 4억원	300개	285억원	
Tech-Bridge		최대 2년, 8억원	19개	36억원	7월1주
투자형 R&D		최대 20억원 (강소기업 30억원)	10개	165억원	7월2주
예비가절형		최대 2년, 6억원	48개	72억원	7월1주
기술규제해결형 (기획지원)		최대 3주, 0.05억원	93개	47억원	6.25
R&D기획지원		최대 4개월, 0.26억원	55개	14억원	6.24
맞춤형기술파트너		최대 9개월, 0.3억원	67개	10억원	6.24
해외원천상용화 (기술진단·기획)		최대 6개월, 0.3억원	25개	8억원	7월3주
AI기반 고부가가치		최대 1년, 최대 3억원	50개	75억원	6.22
합계			1,643	1,801억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형R&D 도입 등 18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R&D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6.23
pya8401@newspim.com

올해 하반기 R&D사업은 기술자립화를 앞당길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포스트코로나를 이끌 비대면 미래혁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재·부품·장비분야 260억원 ▲바이오헬스 등 BIG3(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분야 203억원 ▲AI분야 75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특히 이번 하반기 R&D사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이고 최대 2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3년 연속 매출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고성장 기업 일명 '가젤형 R&D사업'도 새로 지원한다. 최대 2년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R&D 지원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기존의 단순 출연·보조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새로 도입한다.

투자형 R&D 지원방식은 민간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정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서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후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R&D 성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투자지분에 대해 최대 60%까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후불형 R&D는 기업이 R&D 재원의 일부를 선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성공판정 후 나머지 출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후불형 R&D를 통해 창출된 사업화 성과에 따라 ▲기술료 감면 ▲후속 사업화 자금 ▲R&D지원을 연계한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 R&D사업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기존 R&D 사업 부담비율을 최대 35%에서 20%로 낮췄다. 여기다 기업부담금중 현금비율을 최대 60%에서 10%까지 대폭 하향조정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술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선투자·후불형 등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R&D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화 성과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pya8401@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